下向的 地域開發의 限界와 代案 摸索

李 正 煥
責任研究員, 環境開發室

Ⅰ. 問題提起
Ⅱ. 開發哲學의 패러다임 變化
Ⅲ. 高度成長期의 下向式 地域開發
Ⅳ. 代案 摸索과 定住生活圈 開發
Ⅴ. 맺는 말

Ⅰ. 問題提起

지난 20여년간의 高度成長期를 통해 우리 나라의 空間政策과 관련해서 대두된 問題는 都市와 農村間 그리고 地域間의 經濟·社會·文化 등 諸部門에 걸친 隔差의 深化와 이로 인한 大都市地域의 過密과 農村地域의 過疎現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現象은 엄청난 社會的 經費負擔과 國土利用의 偏在化 그리고 심지어는 安保上의 취약성마저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國家의 전체적인 社會的 統合을 저해하고 지속적인 國家發展에 障碍要因으로까지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地域政策에서 重視되어 온 지나친 國家經濟의 能率性에 대한 强調와 그것을 실현시키는 手段으로 채택되어 온 下向式 成長據點戰略에 대한 反省과 함께 이를 시정하기 위한 새로운 代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될 時點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國家政策의 展開에 있어 地域間 發展 및 福祉의 均衡的 配分이라는 衡平性이 중요한 政策目標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地域間 均衡發展은 우선 地域政策을 空間的이며 地域的인 측면에서 파악해야 하는 동시에 地域은 人間의 生活이 영위되는 장소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均衡發展을 추구하는 地域政策의 方向은 場所로서의 地域과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의 繁榮이 함께 추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産業化過程에서 이미 심각한 社會問題로 대두되고 있는 環境과 生態系의 保全問題도 중요시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지금까지의 經濟機能主義的 측면이 강조되는 下向式 開發보다는 領域的 側面이 중시되는 上向式 開發을 지향하는 開發哲學으로의 轉換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John Friedmann and Clyde Weaver 1979). 이러한 점에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上向的 領域開發에 기초한 生活圈開發原理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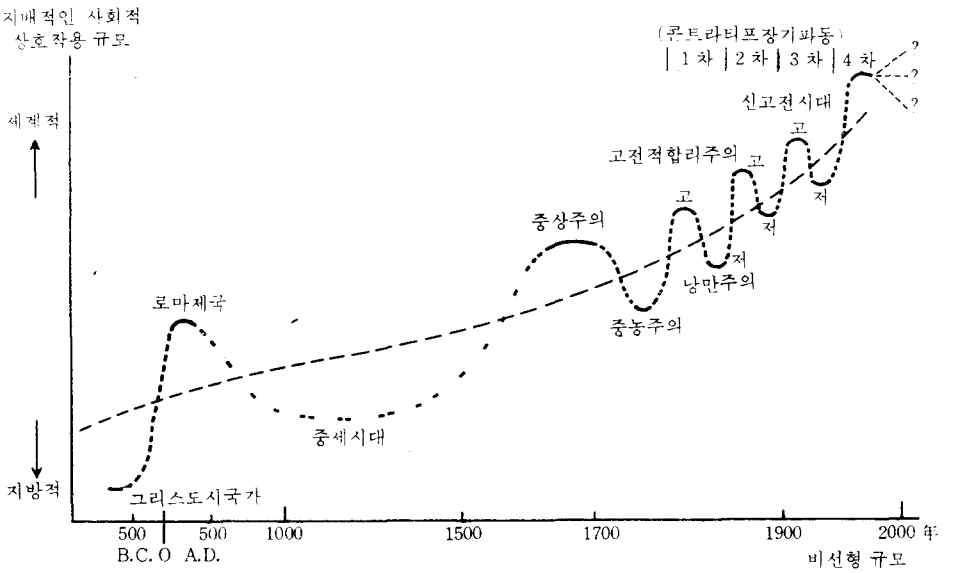
本稿에서는 開發哲學의 패러다임 變化를 歷史的으로 고찰하고, 지난 高度成長期에 우리 나라 地域開發의 戰略이 되어온 下向式 開發의 實際와 限界를 검토한 다음, 그것에 대한 代案이 모색된 背景과 최근에 代案으로 대두된 定住生活圈開發原理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開發哲學의 패러다임 變化

地域開發에 접근하기 위한 開發哲學의 패러다임은 下向式 開發(development from above)과 上向式 開發(development from below)의 두 가지 類型이 있다. 이 두 패러다임은 단순한 開發에 대한 意思決定이 일어나는 水準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 開發目標의 설정에서부터 手段選定에 이르기까지의 制度的 裝置, 資源 動員方法, 事業選定方式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前者는 科學的 合理性과 經濟機能主義를 바탕으로 技術革新, 社會體制의 대단위 相互作用體系의 도모, 대규모 公式活動의 증대, 都市型 活動의 강조, 人間과 自然과의 관계 소홀, 自然資源의 과도한 採取, 非農業的 活動要素의 강조 등과 관련된 開發接近 類型이다. 이에 비해 후자는 주로 形而上學的인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技術革新의 社會的 통제, 社會體制의 相互作用 規模의 축소, 非公式組織 活動의 선호, 農村的 活動要素의 강조, 人間과 自然과의 生態的 關係 重視 등과 관련된 開發接近類型이다(Stöhr 1981, 41~47 ; 조명래 1985, 55).

이 兩者의 패러다임을 역사적으로 고찰한 바에 의하면, 社會體制와 空間과의 相互作用으로 나타난 규모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그리스 시대 이래로 각 時代에 따라 上向的 패러다임과 下向的 패러다임이 週期的 變化를 거듭해 왔다 〈그림 1〉. 이러한 變化는 社會體制의 相互作用 變化, 그리고 보다 광범위한 社會體制의 規範 下에서 經濟行爲의 合理性 變化 등과 관련되어

그림 1 유럽에서의 空間的 相互作用 規模의 歷史的 變遷 : 假說



資料 : Stöhr (1981, 50).

왔고, 보다 최근에는 經濟成長率의 급격한 變化와 관련되고 있다(Stöhr, 1981, 48). 패러다임 變化에 수반해서 社會·政治制度의 組織도 소규모에서 大規模로 주기적으로 變化를 수행해 왔고, 각 社會는 상이한 社會的·政治的·宗教的 集團間의 支配的인 權力構造 變化와도 깊이 관련되고 있었다. 그리고 보다 최근에는 주요한 技術革新과 깊이 관계를 맺으면서 패러다임 變化가 진행되어 왔다(Schumpeter 1939; Lewis 1978).

동시에 패러다임 變化에서 上向式 開發이 意味하는 소규모 相互作用은 구체적인 領域的 空間에서 발생하는데 비해, 大規模 相互作用은 추상적인 機能的 空間에서 주로 발생하여 왔다. 이 假說에 따르면, 空間的 擴大는 合理性과 形而上學이 支配해 온 歷史的 期期에 따라 상당한 동요를 나타내면서 변화해 왔으나, 전체적인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온 것으로 생각한다(Laszlo 1974). 그리고 變化의 일반적인 경향으로 보면, 下向式 開發이 지배한 時期가 上向式 開發이 지배한 時期에 비해 훨씬 더 짧게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下向式 開發의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기간에는 가속적인 革新效果의 不安定으로 인해 相互作用 規模가 계속해서 급속히 증대되지 못하게 되고 규모를 줄이도록 작용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와서 開發哲學의 패러다임에 대한 規範性은 下向的 開發에서 上向的 開發로 다시 그 周期가 옮아가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할 수 있다. 현재 世界의 많은 국가에서는 上向的 接近方式의 有用性이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는 實情이며, 이에 대한 政策的 試圖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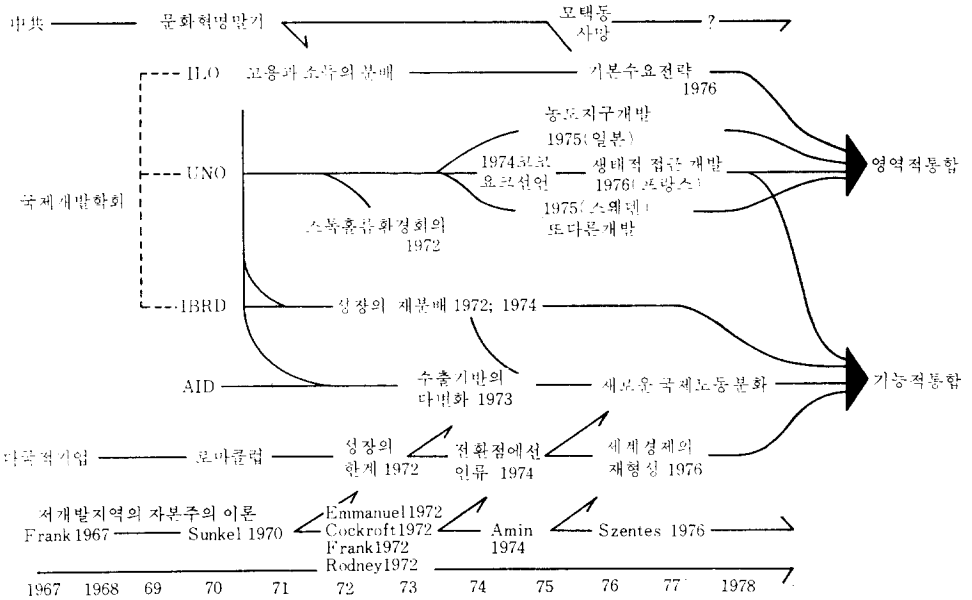
최근 開發哲學의 패러다임 變化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말부터이다. 그것은 1969년 國際開發學會에서 시어즈(Seers)가 開發의 意味에 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 하나의 契機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貧困, 失業, 不均衡의 세 가지 문제가 감소하고 있다면 개발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그것이 악화되고 있다면 國民總生産所得(GNP)이 갑절로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開發의 결과는 의심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eers 1977, 3). 이것이 계기가 되어 不均衡開發의 結果를 개선하기 위한 方法들을 모색하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전통적 모델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싹트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나타난 開發哲學의 패러다임 變化를 時代的 展開過程에서 보면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그림 2〉.

첫째, 西歐의 專門家들에게 教訓的인 示唆를 준 中共의 背景이다. 中共은 近代的 要素와 傳統的 要素가 開發過程에 兩立되어 있지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外部의 支援을 極小化하면서 自己依存的 體系를 유지하는 동시에 農村開發에 우선을 두고, 都市와 農村間의 모순을 극복하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Schenk 1974; Hahn 1977). 中共은 輸出主導型의 開發모델을 갖지 않았지만 基本需要에 만족하고 있었고 社會的 結束力도 높다는 인상을 주게 되었다. 不均衡 開發原理와는 대조적으로 均衡과 正義를 앞세우는 開發哲學을 가지고 있었다. 外部世界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이러한 中共의 背景에 西歐計劃家들은 감명을 받은 것이다.

둘째, 로마 클럽의 硏究活動의 結果에 영향을 받은 점이다. 1972年 U.N. 스톡홀름 환경회의에 제출된 첫 보고서인 「成長의 限界」(The Limits to Growth)는 많은 論爭을 불러 일으켰고

그림 2 開發哲學의 새로운 潮流, 1969~77



자료 : Friedmann and Weaver (1979, 165).

(Meadows et al., 1972), 1974年에는 두번째 보고서로 「轉換點에 선 人類」(Mankind at the Turning Point)가 출간되었는데, 그것은 世界食糧問題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이었다(Mesarovic and Pestel 1974). 그리고 1976년에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틴버겐(Tinbergen 1976)이 中心이 되어 낸 「國際秩序의 再形成」(Reshaping the International Order)이었다. 이 보고서는 基本需要와 領域的 開發의 接近方法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세째, 南美를 중심으로 한 第3世界 經濟學者들에 의해 제기되어 온 從屬理論의 영향이다. 그들은 國際的 水準 또는 國內的 水準에서 발생하는 國家間 또는 地域間의 不均衡은 構造的인 從屬關係에 의해 영속화된다고 보고 國際經濟에서는 新經濟秩序의 추구를, 그리고 地域次元의 開發에서는 內國的 植民主義로부터 解放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들은 新마르크시스트의 急進的 政治經濟學의 주장으로서, 資本主義의 世界經濟體制로의 편입과정을 통해 國家經濟秩序를 붕괴시키고, 그들이 만드는 空間構造는 世界的 關係網과 市場地域內의 섬들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Sunkel 1973; Vernon 1971; Murray 1975; Froebel Heinrichs and Kreye 1976; Feder 1976). 從屬理論들은 다양한 用語와 함께 많은 硏究物이 출간되었으나 주로 批判的 觀點이 중심이 되었고, 그 目的은 開發專門家들의 覺醒을 일깨우는 데 있었다.

네째, 國際勞動機構(ILO)를 중심으로 한 國際機構의 활동이다. 國際勞動機構는 1969年 世界雇傭計劃을 선언하고 각국은 주요 開發의 目標를 完全雇傭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思想을 고취시키는 수단으로 調査團을 만들어 콜럼비아, 케냐, 스리랑카, 필리핀에 파견하고 調査報告書를 내도록 하였다. 앞의 세 나라에 파견된 調査團들은 GNP成長目標에 完全雇

備, 所得의 均等分配의 목적을 추가하여야 한다고 報告하고, 모든 地域에서 貧困이 증가하는 경향을 띠는데, 그러한 경향을 전환시키기 위해 落後地域에 投資를 증가시켜야 한다고 報告하였다 (Thorbeck 1973, 393—423). 이에 대해 필리핀 報告書(ILO 1974)는 輸出基盤을 美國市場 偏向에서 다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임금 제한과 多國籍企業에 대한 開放政策이 요구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필리핀 報告書는 노동의 비교우위의 有利點을 살려 開發途上國이 世界經濟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勞動의 새로운 國際的 分化〉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옹호한 것이 명백하였다 (Friedmann and Weaver 1979, 169).

한편, 세계은행(IBRD)은 「成長의 再分配」(Redistribution with Growth)라는 報告書를 통해 成長의 一部 制限과 生産增加分의 일부가 落後地域으로 투자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Chenery et al. 1974).

그러나 國際勞動機構의 많은 經濟學者들은 1974년까지도 成長의 再分配에 회의적이었다. 그것은 人口稠密地의 食糧問題 解決에 크게 기여한 綠色革命도 근본적으로 農民들을 無産階級化하는 수단으로 변하였고(Griffin 1974), 기대한 것과는 달리 많은 農村住民들의 빈곤은 絶對的 貧困이나 相對的 貧困에서 더 증가해 왔다고 보았다(Griffin and Khan 1976). 따라서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제기된 것이 소위 基本需要戰略이다. 그것은 한 국가가 世界經濟와 연결되고 있는 정도를 줄이거나 단절시킴으로써 開發에 있어 자국의 依存度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農業生産增加와 住民의 基本需要에 우선을 두는 自治的이고 自主的인 開發로서 領域에 기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와는 별도로 1974년 國際 著名科學者 集團이 내놓은 自體依存的 開發을 증가해야 한다는 코코요크(Cocoyoc)선언과 1975년에 스웨덴의 닥함마스쉬욜드(Dag Hamarskjöld) 기관이 제기한 基本需要戰略을 의미하는 「또 다른 開發」(Another Development) 등이 있다. 그리고 거의 同時에 UN會議가 개최된 나고야에서 都市와 農村의 統合開發을 의미하는 農都地區戰略 (agropolitan strategy)이 제기되었고(Friedmann and Douglass 1975), 1976년에는 基本需要戰略에 環境的 倫理를 統合하고 農村開發의 측면에 초점을 둔 「生態的 開發」(ecodevelopment)의 槪念이 널리 소개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69년 이래 開發哲學의 潮流는 機能的인 면과 領域的인 면의 두 가지 형태로 수렴된다. 모든 國家經濟는 모두가 이들 두 가지의 兩面性을 가지나 실제에 있어서는 첨예한 대립을 야기시킨다. 문제는 어떤 경우에서든 領域的 體系가 없는 機能的 體系가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난 20여년간 機能的 原理와 領域的 原理를 지배해 온 極化된 下向式 開發은 基本需要에 바탕을 둔 領域的 開發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開發의 接近은 地域間 均衡開發에 중점을 두는 上向式 開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겠다.

Ⅲ. 高度成長期의 下向式 地域開發

1. 下向式 地域政策과 農村開發

國土의 바람직한 空間組織을 위해 행해지는 地域政策은 空間 또는 地域의 바람직한 組織, 發展 및 利用에 이르기 위하여 國家나 그에 준하

는 公共機關이 설정된 목표에 상응하는 수단을 채택하여 시행하는 意圖的 行爲라고 개념지을 수 있다(Bröss 1975, 5~6 ; 柳佑益 1983, 87). 따라서 地域政策의 意義는 地域發展을 空間的이며 地域的인 측면에서 파악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韓國의 地域政策은 解放 후 政府樹立에서 1962년 제 1 차 經濟開發計劃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의미에서는 全無하였다고 할 수 있다. 第 1 次 經濟開發計劃은 資源開發과 基幹産業育成을 통한 國家經 濟成長에 목표를 두고, 國民經濟의 隘路를 일괄 타개하기 위한 綜合對策으로 출발하였다(金儀遠 1982, 762—769). 이 計劃을 통해 政府는 工業化推進의 母體로 등 장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工業化 중심의 國家經濟發展이 유도되어 왔다. 이어서 계속된 第 2 次經濟開發計劃 역시 工業化政策의 기조를 그대로 계승하였고 工業의 高度化에 주력해 왔다. 따라서 經濟開發計劃은 計劃 그 자체가 地域計劃이 아닌 經濟計劃이었기 때문에, 地域政策的인 次元에서는 개별적인 開發事業의 立地的 性格을 띠고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國土空間的 측면에서 地域에 대한 문제가 최초로 인식되었고, 또한 地域政策的 性格을 띠고 시행된 것은 首都圈 人口集中 抑制政策의 한 방편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의 주된 내용은 首都圈 人口集中의 原因解消를 위한 問題解決 중심의 방법이었다(黃明燦 1984, 347—348).

우리 나라에서 地域政策이 形式上 제 위치를 찾은 것은 제 1 차 國土綜合開發計劃(1972~1981)이 樹立되면서 부터이다. 제 1 차 國土計劃은 中央政府의 주도 아래 國家的 目標達成을 위해 全國土를 4 大圈, 8 中圈, 17小圈의 3 階層으로 나누고 각 圈域마다 부여된 기능과 분담할 역할이 下向的으로 주어졌다. 따라서 國土政策은 國家經濟의 能率性에 대한 지나친 강조와 함께 그것을 실현시키는 수단으로 下向式 成長據點開發戰略을 채택해 왔다. 그러므로 經濟計劃 위주의 國土計劃이 되었고 그것의 接近은 産業部門計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産業部門計劃은 國家經濟成長을 극대화할 수 있는 産業의 육성에 역점을 두었고, 그것이 空間에 적용될 때는 企業의 最適立地로 나타나게 되어 극히 좁은 地方的 水準에서 立地效率性만을 찾게 됨으로써 大都市 중심의 極化된 發展이 조장될 수밖에 없었다.

제 2 차 國土綜合開發計劃(1982~1991)은 1 次 國土計劃에서 파생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經濟成長과 均衡開發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國民福祉向上을 꾀한다는 基本理念 아래, 國土의 多核化를 위한地域生活圈의 開發과 成長據點都市의 육성을 戰略的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다(大韓民國政府 1982, 15—19).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地域政策은 1960년대 이전에는 政策 그 자체가 부재하였고, 1960년대 이후 高度成長期와 더불어 시작된 經濟開發計劃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地域政策은 經濟開發政策의 수단에 불과하였다. 經濟政策에 종속된 地域政策은 개별적인 單位開發事業의 성격을 띠고 산발적으로 시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地域政策이 형식상 제자리를 찾았다고 볼 수 있는 제 1 차 國土計劃은 政府主導의 강력한 下向式 成長據點開發戰略을 政策의 수단으로 채택해 왔다. 또한 國土의 均衡開發을 위한 노력이 大都市問題 解決을 위한 한 방편으로 행해져 問題地域을 향한 直接的인 政策이 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高度成長期의 地域政策은 計劃單位가

되는 開發圈域의 廣域化와 成長據點開發戰略의 채택으로 國土空間의 分極化를 조장하고 地域間 隔差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의 農村開發 역시 政策的 關心이나 開發戰略에 있어 항상 國家的 차원의 經濟社會 發展戰略과 맥락을 같이 해 왔다. 그러므로 農村 開發 역시 國家總量經濟成長의 極大化를 위한 農業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高度成長期의 農村開發은 이른바 農業의 役割論에서 그 논리적 기반을 찾을 수 있다 (崔洋夫 1981, 43). 그것은 ① 絶對不足狀態에 있던 國民食糧의 만성적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主穀의 增産과 安定的 供給, ② 都市 및 工業部門에 必要한 勞動力의 供給, ③ 經濟發展에 소요되는 資本蓄積의 수단으로서 農業資本의 供給, ④ 工産品에 대한 內需市場등의 역할이 농촌에 분담되었음을 의미한다.

農業役割論은 韓國社會에서 農村空間을 단순한 食糧生産의 空間으로 인식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그것의 論理的 뒷받침으로 인해 高度成長期의 農政은 食糧增産 특히 主穀增産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고, 農業投資 역시 食糧增産이나 그것과 관련된 農業生産技術의 開發과 普及, 農業生産基盤의 整備 등에 집중되어 왔다. 따라서 高度成長期의 農村開發은 農業開發을 의미하며, 그것도 主穀增産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로 인해 農村이 곧 農業이라는 認識을 낳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性格은 과거 農村開發의 代表的 類型이라고 할 수 있는 地域社會開發事業, 農村指導事業, 새마을運動의 展開過程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우리 나라의 農村開發은 1970년대초에 새마을運動이 본격화하기 이전에는 주로 地域社會開發事業과 農村指導事業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地域社會開發事業은 先進國의 모델이 그대로 導入·移植되어 우리 나라에 土着化할 만한 與件이 조성되지 않았으며, 빈번한 組織體系上의 變革과 함께 뚜렷한 事業內容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農村指導事業은 주로 農業技術이나 食糧增産에 치중하였고, 지나친 下向式의 行政手段이 동원되어 農民의 신뢰마저 잃기도 하였다(洪東植 外 1982, 396—402).

1960년대 당시 低農産物價格 構造下에서 수행된 食糧增産政策은 결과적으로 農業의 상대적 低成長, 농가의 상대적 低所得, 그리고 농촌의 상대적 低開發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한 農村經濟社會의 不安定은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새마을運動의 착수를 불가피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의 農村새마을運動은 마을單位에서 주민들의 精神啓發, 環境改善, 그리고 農村勞動力과 資本動員에 의한 마을 下部構造開發이 그 중심을 이루어 왔다(黃仁政 1980, 22—28). 그리고 綠色革命에 의한 쌀의 多收穫 新品種의 開發과 그것의 農家普及 擴大 그리고 二重穀價制에 의한 米價支持政策이 동시적으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 食糧增産은 물론 마을單位의 環境改善 그리고 農村새마을運動이 必要로 하는 資本動員을 農村內部에서 조달할 수 있을 만큼 큰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1978년 이후 3년간 계속된 農業災害와 穀價支持政策의 후퇴는 農村새마을運動의 低調現象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상의 3가지 類型 중 農村指導는 敎育機關의 社會改革機能을 강화하는 理念에서, 地域社會開發은 植民地의 農村開發의 필요성에서, 그

리고 새마을運動은 産業과 地域間의 均衡的 發展을 통한 國家發展의 理念에서 출발함으로써 각기 그 起源的 背景을 달리하며(崔敏浩, 姜在大 1977, 401), 실제의 適用過程에서도 差異點을 갖는다. 그러나 高度成長期의 農村開發過程에서 나타난 基本的 性格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과거 農村開發은 農業役割論의 영향을 강하게 받음으로써 農村은 단지 값싼 食糧과 勞動力을 제공해야 한다는 傳統的 생각에서 農業開發을 지향해 왔다. 그리고 農村開發單位가 마을單位 중심으로 진행됨으로써 國土空間體系上에서 보면, 農村은 고립되고 분리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領域的인 측면에서 볼 때는 孤立的이고 分散的인 接近方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근본적으로 下向式 開發의 接近方法이었기 때문에, 國家的 目標인 總量成長論理에 따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므로 地域與件이나 주민의 基本需要는 경시되어 왔다(Choe Yang-Boo 1985, 7—11). 동시에 開發過程에서 나타난 副作用에 대해서는 問題解決 중심의 부분적인 改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2. 下向式 地域開發의 限界

高度成長期의 地域政策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下向式 成長據點戰略에 의해 大都市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成長據點戰略이 지닌 核心的인 概念은 集積經濟와 地理空間的 波及効果의 概念이다. 제한된 資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手段으로 成長潛在力이 가장 높고 또한 기대되는 投資收益性이 가장 높으리라 예상되는 地域을 成長據點으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되며(Niles M. Hansen 1975), 그것의 發展効果는 都市의 階層體系를 통해서(Berry, 1972), 産業의 投入—算出關係를 통해서(Perroux, 1964), 대규모 기업조직의 內的 經路를 통해서(Lasuén, 1973 ; Pred, 1977), 또는 대규모 政府組織을 통해서 주변의 背後地域으로 일정한 시간만 지나면 자연적으로 확산되어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成長據點戰略이 채택되어 시행되어 온 결과는 國內外를 막론하고 밝은 면보다는 어두운 면을 보여주었다. 地域開發을 위한 問題解決보다는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켜 왔다고 하여 國內外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져 왔다(Stöhr, Tödling 1978 ; 柳佑益 1981, 1983 ; 崔洋夫 1983 ; 金炯國, 1983 ; 李喜演 1984). 이러한 批判은 成長據點理論 그 자체나 方法論上의 문제보다는 施行過程을 통해 나타난 經驗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開發戰略의 採擇이나 그것의 施行은 國家의 규모, 人口와 資源의 분포, 經濟社會의 發展水準, 文化·制度的 體制, 그리고 政治的 構造에 기초하여야 한다(Richardson and Richardson, 1975).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成長據點戰略을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들이 처한 與件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先進國의 成長據點戰略을 無批判的으로 이식하여 왔기 때문에,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시켰다. 우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 나라에서 高度成長期의 成長過程에서 나타난 서울의 경우를 보면, 生産因子를 끌어내는 背後地域은 전국적인데 비해, 成長의 効果를 직접 파급시키는 範圍는 首都圈에 한정되어 극히 제한된 범위를 보여 주며(柳佑益 1984, 34), 投資에 의한 雇傭과 所得의 乘數効果는 누출되어 地域住民을 위한 發展과는 상당한 差異가 있으며 그 地域의 成長을 위한 再投資가 일어나는

경우도 극히 미약한 것으로 생각된다(Kim An-Jae 1978 ; 李正煥 1985). 또한 成長據點戰略의 本質이 都市·工業指向的이기 때문에, 극화된 發展과 地域隔差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工業化·都市化過程에서 야기되는 離村向都型의 人口移動을 통해 大都市의 過密과 農村의 過疎現象이 심해지고, 동시에 人口移動이 갖는 選擇的 屬性으로도 都農間 隔差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國土空間의 不均衡과 都市·農村間 累積的 惡循環이 되풀이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成長據點戰略은 下向式 開發哲學의 核心的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大規模組織이 유리한 입장에 선다. 따라서 小數의 大組織과 그것들이 입지한 곳을 향해 필연적으로 政治的·經濟的 힘의 집중이 일어나게 되고, 집중된 힘은 결국 전체 組織體系를 지배하게 되며, 그것은 지역적으로 상이한 自然條件 및 文化와 價値體系의 多樣性을 무시하고 획일화된 發展을 강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落後地域은 주어진 發展槪念과 그 기준에 비추어 더욱 불리한 역할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되어 先發地域에 대한 依存度를 계속 높여갈 수밖에 없다(柳佑益, 1983, 94). 그것은 결과적으로 周邊地域의 經濟的自立基盤은 물론 고유한 文化的 기반마저 획일화된 價値體系에 의해 무너지게 된다.

오늘날 韓國 社會에서 대두되고 있는 地方化, 地域主義, 地方文化에 대한 강조는 지나치게 同質化되어 가고 있는 國民과 國土空間에 多元性과 多樣性을 살려야 한다는 외침일 것이다. 規格化·劃一化·標準化되어 가는 우리의 文化와 價値體系를 지양하고, 多樣性과 個別性을 존중하는 價値體系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高度成長期의 農村開發 역시 國家經濟成長을 뒷받침하는 데 우선을 두어 食糧增産 爲主의 農業開發에 주력해 왔고, 開發의 地域單位는 마을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따라서 産業化가 진전될수록 生産이라는 經濟的 機能보다는 社會厚生的인 機能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된다(相川哲夫 1984, 19—22)는 점을 간과해 왔고, 産業化의 진전과 交通·通信網의 발달에 따른 農村住民의 生活圈의 확대를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農村地域의 개념을 農村中心都市와 背後農村地域을 통합한 地域單位로 보지 않고 分離·孤立의 개념으로 보았기 때문에, 個別事業이 분산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個別事業이 연계성을 잃은 채 분산적으로 시행되어 왔다는 것은 事業의 効率性을 가져올 수 없었고, 機能的이고 事業單位中心인 接近은 行政의 分散多岐化를 가져와 行政的인 非能率마저 초래하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高度成長期의 地域開發은 현실적인 適合性을 갖지 못하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그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될 時點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地域政策에서 야기된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의 生活의 場이라는 領域的 측면에서, 다시 말해 人間定住空間이라는 관점에서 國土空間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農村開發은 農村住民들이 安定된 삶의 質과 機會를 누리는 데 필요한 定住條件을 마련해 주지 못한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Ⅳ. 代案 摸索과 定住生活圈開發

1. 代案 摸索

지난 30여년간에 걸쳐 대부분의 開發途上國들

은 國家總量經濟成長을 經濟開發의 목표로 삼고, 國民總生産을 經濟發展의 지표로 신봉해 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南北 國家間과 開發途上國 내부의 階層間·部門間·地域間 隔差를 심화시켜 소망스럽지 못하였다.

成長 爲主의 전통적인 開發戰略은 貧困人口數와 不完全就業者數를 감소시키지 못하였고 1969년 이후 國際勞動機構가 추진한 바 있는 世界雇傭增大計劃도 그 효과가 부진하였다(조재육 1985, 122).

이러한 배경에서 國際勞動機構를 비롯한 國際機構들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開發戰略들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기되게 되었다. 그것들은 전체적인 効率性에 바탕을 둔 下向式 開發의 機能的 統合과는 반대로, 지역주민의 基本需要와 參與에 바탕을 둔 上向式의 福祉指向的인 領域開發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下向式의 成長據點開發戰略에 의한 發展過程에서 소외된 지역과 階層을 위한 開發戰略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方式과는 다른 規範性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것은 上向的·微視的·福祉的 開發을 의미하는 동시에 地域單位에서 自主的으로 일어나는 內發的 開發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서 의미하는 空間은 추상적인 機能空間이 아니라 人間의 生活과 生産, 歷史, 行政, 文化 등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實體的 場所로서의 領域的인 地域을 의미한다(조명래 1985, 59).

이와 같은 國際的인 動向에 따라 世界 각국은 그들의 開發哲學을 전환하는 새로운 戰略들이 다양한 명칭과 개념으로 제시되어 왔다. 그중에서도 특히 1979년에 공포된 日本의 三全總에서 밝힌 「定住構想」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三全總에서는 한정된 國土資源을 전제로 地域特性을 살리면서 歷史的 傳統的 文化에 바탕을 둔 人間과 自然이 조화된 人間居住의 統合的 環境을 정비하는 데 基本目標를 두고, 定住圈開發方式을 통해 그 目標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生活圈開發을 위해 定住構想에서 밝힌 圈域을 보면, 生活圈의 가장 基本單位로 50~100세대를 하나의 居住區로 보고, 그 위에 複數의 居住區가 모인 定住區를 두고 그리고 定住區가 복합되어 定住圈을 형성한다고 생각하였다. 여기서 定住圈은 전국적으로 200내지 300개로 구분된다고 생각하였으며 대체로 20~30만의 인구를 포용한다고 보았다. 定住圈을 生活圈의 基本圈域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地域開發의 基本單位가 된다(日本國土廳 1978). 그러나 定住圈開發의 실제에 있어서는 인구의 地方定着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되는 44개의 모델 定住圈을 선정하고 그것의 정비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상과 같은 國際的 影響과 우리 나라의 國內與件과 時代的 要求에 의해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開發哲學의 轉換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 이와 같은 狀況에서 대두된 것이 生活圈開發戰略이다.

그것은 제 2 차 國土綜合開發計劃(1982~1991)에서 地域生活圈의 개념이 도입되어 제 1 차 國土計劃의 취약점을 보완하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2 차 國土計劃이 공포되면서부터 새로운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것은 2 차 計劃 역시 1 차 國土計劃과 마찬가지로 내용적으로는 成長據點開發戰略을 답습하고 있어 均衡開發이 될 수 없으며, 計劃의 目標와 수단이 모순을 보이고 있다(柳佑益 1983, 87~106)는 지적과 計劃의 樹立과 執行에 관한 主體를 갖지 못하는 觀念的 槪念으로 남

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과 더불어 生活圈의 把握이 階層的 關係는 무시된 채 平面的 關係로만 파악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崔洋夫 1985, 44—52)는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批判과 함께 韓國的 狀況에서는 定住生活圈開發이 오히려 적실한 代案的 戰略이 된다는 論理的 주장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崔洋夫 1981, 1983, 1985 ; 金炯國 1981 ; 崔相哲 1982). 이와 동시에 大都市人口集中을 막고 낙후된 農村發展을 支援하기 위한 農村中心都市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었다(朴贊石 1982 ; 宋仁城 1982 ; 崔洋夫 1982 ; 金炯國 1983).

이러한 傾向에 따라 政府에서도 內務部가 주관이 되어 定住生活圈開發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定住生活圈 設定作業으로 시작되었고(朴炳柱 外 1981), 이와 때를 같이 해서 地方定住生活圈 開發示範計劃이 각도에 1개소씩 수립되게 되었다.

定住生活圈計劃은 最近에 와서 農村經濟硏究院에서 이미 제기해 온 農村地域綜合開發과 관련되면서 政策化 段階에 들어서게 되었다.

2. 定住生活圈開發

定住生活圈은 人間의 삶을 담는 空間的 그릇으로서 人間의 삶과 空間의 複合體라고 할 수 있다(中允杓 1984, 11—12).

여기서 定住生活圈은 人間定住生活의 基本單位로 보며, 그것을 새로운 地域開發의 計劃對象圈域으로 하여 定住環境과 定住條件을 充足시킴으로써 國土空間에 人口定着基盤을 마련해 갈 수 있다는 것을 前提한다.

定住生活圈의 空間的 秩序 속에는 自然環境, 生活環境, 生産環境 등 日常生活에 필요한 諸環境施設들이 自然生態的 空間, 經濟的 空間, 社會文化的 空間 속에서 調和를 이루면서 동시에 農村中心都市와 背後農村地域이 질서있는 階層體系와 함께 有機的으로 統合되어 있는 것을 意味한다(柳佑益 1984, 32—33). 따라서 物理的 境界로 區劃된 地域의 단순한 空間範圍가 아닌 全體 地域社會로서 一體感을 갖는 人間定住生活의 基本的인 空間單位를 定住生活圈이라 할 수 있다.

定住生活圈을 地域開發의 새로운 計劃地域으로 볼 때, 그것의 圈域을 設定하는 問題가 제기되나, 人間의 生理的 週期에 무리가 없어야 하고, 農村住民의 非農業活動에의 就業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在村通勤이 가능한 空間範圍라야 하며, 自然地理的 與件이나 中心都市의 分布에 現實的인 適合性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點을 고려해 보면 대체로 기존의 行政單位로서는 郡規模에 해당하며 中心都市를 半經으로 平均 16km 內外에 해당된다(崔洋夫外 1985, 38—39).

이러한 定住生活圈을 새로운 計劃單位로 해서 生活圈의 階層體系를 고려한 地域開發을 추진해 갈 때, 全國土空間 속에서 定住體系의 安定과 住民의 基本需要, 그리고 福祉向上에 효과적으로 接近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現實的으로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定住生活圈開發은 과거 經濟機能主義的인 開發이 가져다 준 限界를 극복하고 地方의 中小都市와 背後農村地域이 共生的 關係로 자연스럽게 統合될 수 있는 地域開發의 새로운 戰略的 手段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定住生活圈開發은 다음과 같은 接近을 容易하게 해 준다는 點에서 중요한 意義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첫째, 地方開發에 있어 지금까지 소홀해 왔던

長期的이고 體系的인 計劃的 接近이 容易해진다. 과거 單位事業이 마을單位나 小都邑單位에서 分散·孤立的으로 시행되던 것을 지양하고 定住生活圈 單位에서 統合한 綜合開發을 추진할 수 있어 연계성의 提高와 投資效果의 增大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地域單位가 開發의 主體가 되며 地域住民의 參與와 共通慾求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地域與件을 살리고 住民의 基本需要充足에 우선하는 開發이 될 수 있다.

세째, 과거 道單位中心의 廣域圈을 對象으로 하는 國土計劃과 自然部落中心의 農村開發方式의 中間水準에 있는 郡單位規模의 定住生活圈을 開發圈域으로 하기 때문에 國土空間上의 地域間隔差뿐만 아니라 地域內 隔差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도 效果的인 手段이 된다. 동시에 마을單位의 地域社會開發과 都市中心의 物的 計劃에 기초한 地域開發을 調和시켜 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國土 全體空間에 定住環境과 住民의 福祉水準의 向上을 유도함으로써 地方에 人口定着基盤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定住生活圈開發이 갖는 意義는 바로 이러한 國土의 均衡發展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V. 맺는 말

開發哲學의 패러다임은 最近에 들어 經濟機能爲主의 下向式 開發에서 生活圈中心의 領域을 重視하는 上向式 開發로 轉換해 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世界各國은 그들의 開發哲學을 轉換하는 새로운 戰略들이 다양한 명칭과 槪念으로 시도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福祉와 均衡이라는 價値가 오늘날에 와서 重要한 國家發展目標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것은 지난 高度成長期의 地域開發에서 야기된 國土의 不均衡과 都農間 隔差問題가 심각해짐으로써 그것의 시정이 國家的 課題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대두된 代案은 生活圈開發原理를 적용한 地域生活圈과 定住生活圈으로 具體化되고 있으며, 오늘날 韓國的 狀況에서는 定住生活圈이 적절한 戰略이 될 수 있다는 데 共感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落後地域이나 農村地域의 發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廣域生活圈보다는 住民의 日常生活圈 中心으로 接近하는 것이 보다 合理的일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計劃地域으로 등장한 定住生活圈이 기대한 目標대로 開發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課題도 많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開發과는 다른 規範性이 요구되기 때문에, 制度的인 改善과 뒷받침이 先決되어야 한다.

그리고 有關機關과 地域住民들이 그들의 開發意志를 結晶시키고 꾸준히 인내를 가지면서 智慧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努力 속에서 건전한 國土空間은 再組織되어 나갈 것이다.

參 考 文 獻

金儀遠, 1982, 「韓國國土開發史硏究」, 大學圖書.

金炯國, 1981, "地方定住生活圈計劃과 都市開發," 「都市問題」, 10月號, pp. 32~45.

———, 1983, "농촌지원형 소도읍의 유형화연구," 「國土開發의 理論硏究」, 博英社, pp. 175~205.

大韓民國政府, 1982, 「第2次 國土綜合開發計劃」.

朴炳柱外, 1981, 「地方定住生活圈의 設定 및 開發에 關한 硏究」, 內務部.

朴贊石, 1982, "農村中心都市開發戰略," 「都市問題」, 2月號, pp. 45~58.

宋仁城, 1982, "農村中心地와 農村開發—統合된 空間開發戰略으로서 農村開發," 「都市問題」, 2月號, pp. 20~36.

申允杓, 1984, "韓國農村定住圈開發의 理想模型과 行政戰略에 關한 硏究," 慶熙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柳佑益, 1981, "農村人口의 都市指向移動이 農村地域에 미치는 影響,"「地理學論叢」, 第8號, pp. 33～43.

———, 1983, "韓國地理學에서의 地域政策의 爭點,"「地理學論叢」, 第10號, pp. 87～106.

———, 1984, "國土開發에 있어서 農村開發의 意義,"「地理學」, 第30號, pp. 28～40.

李喜演, 1984, "成長據點理論과 據點開發戰略,"「地理學會報」, 第21號, 大韓地理學會.

李正煥, 1985, "蔚山市의 工業化過程과 都市環境,"「地域開發論文集」, 第13輯, 慶熙大 國土開發硏究所, pp. 63～76.

조명래, 1985, "대안적 방식으로서의 상향적 지역개발,"「地方의 再發見」, 民音社, pp. 53～89.

조재욱, 1985, "기초수요이론과 지역개발,"「地方의 再發見」, 民音社, pp. 112～129.

崔相哲, 1985, "地方의 時代와 지방개발,"「地方의 再發見」, 民音社, pp. 11～28.

崔洋夫, 1981 a, "地方化時代에 있어서 地域開發의 方向摸索을 위한 세미나 : 主題發表論文," 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

———, 1981 b, "地方定住生活圈 開發戰略," 地方化時代에 있어서 地域開發의 方向摸索을 위한 세미나 主題發表論文集, pp. 25～48.

———, 1982, "農村中心都市의 意義와 役割,"「都市問題」, 2月號, pp. 8～19.

———, 1983, "農村發展과 農村計劃," 國土計劃」, 第18卷第2號, pp. 1～15.

———, 1985, "지방발전을 위한 중소도시와 농촌개발의 새로운 전략과 과제—정주 생활권 개념에 의한 국토인식과 농도통합,"「地方의 再發見」, 民音社, pp. 159～184.

———外, 1985,「定住生活圈設定 및 類型化」, 韓國農村經濟硏究院.

崔洋夫·李正煥, 1985, "國土開發戰略의 轉換과 農村地域綜合開發," 農村地域綜合 開發硏究의 課題 : 第1次 農村地域綜合開發 워크샵報告書, 韓國農村經濟硏究院, pp. 1～20.

崔敏浩·姜在大, 1977, "農村開發의 槪念設定,"「農學硏究」, 第2卷第1號, 서울農大, pp. 391～406.

洪東植外, 1982,「農村社會學」, 法文社.

黃明燦, 1984,「地域開發論」, 경영문화원.

黃仁政, 1980,「韓國의 綜合農村開發 : 새마을운동의 評價와 展望」, 韓國農村經濟硏究院.

相川哲夫, 1984,「農村空間整備論, ゆたかな社會の村づくり原論」, 東京, 農林統計協會.

日本國土廳, 1978,「第三次全國總合開發計劃」, 第1卷, 國土計劃協會.

Berry, B. J. L., 1972, "Hierarchical Diffusion: The Basis of Development Filtering and Spread in a System of Cities," in N. M. Hansen(ed.), *Growth Centres i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New Yerk, The Free Press.

Brösse, U., 1975, *Raumordnungs Politik*, Walter de Gruyter Berlin.

Chenery, H. et al., 1974, *Redistribution with Growth*, Oxford University Press.

Choe Yang-Boo, 1985, "Redirection of Rural Development in the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Some Critical Research Issues in the Asian Context," A Paper prepared for the Sixth ADIPA Biennial Conference on towards Greater Regional Cooperation and Economic Integration of Asia and the Pacific, Bangkok, Thailand, KREI.

Feder, E., 1976, "How Agribusiness Operates in Underdeveloped Agricultures," *Development and Change* 7, pp. 413～44.

Friedmann, J., and Weaver, C., 1979, *Territory and Func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and Douglass, M., 1975, "Agropolitan Development: Towards a New Strategy for Regional Planning in Asia," in *United Nations Centre for Regional Development*, pp. 333～87.

Froebel, F and Heinrichs, J., and Kreye, O., 1976, "Tendencies towards a New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ur,"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February, Bombay, pp. 159～70.

Griffin, K., 1974, *The Political Economy of Agrarian Change: An Essay on the Green Revolution*, London: MacMillan.

——— and Khan, A. R., 1976, "Rural Poverty: Trends and Explanation," MS. Geneva, ILO.

Hahn, E., 1977, "Raumplanung und Siedlungs Politik in der Volks Republik China," *Raumforschung und Raumordnug* Vol. 7, pp. 293～304.

Hansen, N. M., 1975, "An Evaluation of Growth Center Theory and Practice," Environment and Planning ol. 7, pp. 821～32.

Kim An-Jae, 1978, "Industrialization and Growth Pole Development in Korea: A Case Study of the Ulsan Industrial Complex," *Growth Pole Strategy an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UN Centre for Regional Development by Per-

gamon Press, pp. 5o~77.

Lasuén, J. R., 1973, "Urbanization and Development-The Temporal Interaction between Geographical ane Sectoral Clusters," *Urban Studies* Vol. 10, pp. 163~88.

Laszlo, E., 1974, *A Strategy for the Future*, New York, Braziller.

Lewis, W. A., 1975, *Growth and Fluctuations 1870~1913*, London, George Allen & Unwin.

Meadows, D. H. et al., 1972, "The Limits to Growth," *A Report to the Club of Rome*, New York, Universe Books.

Mesarovic, M. and Pestel, E., 1974, "Mankind at the Turning Point," *The Second Report to the Club of Rome*, New York, E. P. Dutton.

Murray, R., 1975 (Orig. 1971), "Multinational Companies and Nation States: Two Essays," London, Spokesman Books.

Perroux, F., 1964, *L'économie du Xxème Siécle*, 2nd, ed.,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Pred, A., 1977, *City Systems in Advanced Economies*, London, Hutchinson.

Richardson, H. W. and M. Richardson, 1975, "The Relevance of Growth Centre Strategies to Latin America," *Economic Geography*, Vol. 51, pp. 163~78.

Schumpeter, J., 1939, *Business Cycle* 2 Vols., New York, McGraw-Hill.

Schenk, H., 1974, "Concepts behind Urban and Regional Planning in China," *Tijdschrift voor Economische en Sociale Geografie* Vol. 65, pp. 381~89.

Seers, D., 1977, The New Meaning of Development," *International Development Review* Vol. 3, pp. 2~7.

Stöhr, W. B. and Tödtling, F., 1976, "Spatial Equity: Some Antitheses to Current Regional Development Doctrine," MS Vienna: *Interdisciplinary Institute of Urban and Regional Studies*, Wirtschafts Universität.

——— 1981, "Development from Below: The Bottom-Up and Periphery-Inward Development Paradigm," *Development from Above or Below*? in Stöhr, W. B., et al. ed., John Wiley and Sons, pp. 39~72.

Sunkel, O., 1973, "Transnational Capitalism and National Disintegration in Latin America," *Social and Economic Studies* Vol. 22, pp. 132~76.

Thorbeck, E., 1973, "The Employment Problem: A Critical Evaluation of Four ILO Comprehensive Country Report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Vol. 107, pp. 393~423.

Tinbergen, J., Co-ordinator 1976, "Reshaping in the International Order," *A Report to the Club of Rome*, New York, E. P. Dutton.

Vernon, R., 1971, *Sovereignty at Bay*, New York, Basic Books.